

[온누리35주년 온라인 선교간담회]

셋째 날(20201014) “이주민과 난민” 조별나눔 보고서

<강진아 조>

선교지에서 이주민으로 와있는 사람들을 통해 현지인과 이주민 사역을 같이 할 수 있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주민들을 통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한국인1위 중국인2위 베트남3위로서 한국목사님은 베트남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베트남인들을 돕고 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종교적의 모습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통한 나눔과 사랑을 전하여 할 것이다.

터어키는 페이스북으로 난민사역과 다른 지역을 아울러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난민들에게 식료품 공급과 어린이들을 비대면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난민들은 인터넷이 없는 상황이다. 비대면 사역이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터어키의 지방에 있는 난민들과 이주민(이란, 아제르바이잔등)은 정착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터어키의 이란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올리브밭으로 도움을 일을키려고 하는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상황이다.

스리랑카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있으며 현지 침례교단과 함께 협력사역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다. 스리랑카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으로 이주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다시 돌아와도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돌아가 일을 하려고 한다.

박 선교사님 경북의성으로 다문화 사역을 위한 지원으로 간다.

사할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은 한국인으로서의 상처와 지금 사역의 진행등이 러시아에서 위험하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사할린 이주민인들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기록을 남기고 자 한다.

<구자현 조>

1. 코로나가 끝난다면 이주민 선교, 국내 난민 선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역할 것인가?

국내 난민 6만명은 대부분 난민 신청자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난민을 적게 받아들이는 나라 중 하나로 정식 난민이 된 사람은 500여명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언제 가는 다시 본국으로 혹은 타국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점에서 외국에서 활동하시는 현장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도미니카의 경우 아이티의 유학생을 돕는 것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2.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선교와 해외선교 어떤 영역에서 연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지금 만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프로파일을 만들어 현장의 선교사와 협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의 선교사님들은 SNS를 통해 언어적인 도움을 주거나, 화상으로 양육까지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언제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협력자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3. 총체적 선교를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 다른 교회와 협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M센터는 지역교회가 방문하면 콘텐츠를 공유하고, 서로 상충하는 사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고 해결을 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도와야 한다.

<권피터 조>

1. 코로나가 끝난다면 이주민 선교, 국내 난민 선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역할 것인가?

ㄱ. 시스템을 준비하자

코로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해 현재 이주민과 난민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면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안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ㄴ. 현지인 사역자 양육

한국에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이주민들과 난민들에게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배워 사랑하는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육성해야 한다.

ㄷ. 관계와 케어가 이루어지는 플랫폼

이주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대면과 만남이 어려울 때 지속적으로 만나고 케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선교와 TIM 선교 어떤 영역에서 연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ㄱ. 연결이 필요하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민들과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연결을 시켜주어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동역하여 리더로 세우고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ㄴ. 현장을 떠난 선생님들이 더 효과적으로 이주민 난민 사역을 할 수 있다.

현지에 계신 분들 보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주민들이나 난민들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한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고국에 돌아온 선생님들이 장소만 옮겨져서 섬기시는 것이다. 은퇴 이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섬기실 수 있다.

ㄷ.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민자 보다 난민들은 더 절실하다. 농업, 조선소, 공장, 등등 제일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한다. 이들이 정착하도록 삶에 질이 높아지도록 도와주는 사역들(기술, 언어, 법률 문제)등 등이 필요하다.

3. 총체적 선교를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ㄱ. 촉진자

좋은 콘텐츠들이 중복해서 만들어 지지 않고 잘 촉진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촉진자가 필요하다.

ㄴ. 총체적인 것들을 제공하고 배우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

<김성윤 조>

1. COVID-19로 인해서 온라인을 활용해서 전도 및 양육, 예배로 전환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주민, 난민에게 현지어(또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교육을 개발해서 접촉점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3. M미션이나 한국에서 훈련 받은 이주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현장 선교사와 연결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4. 여러 민족의 난민들이 한곳으로 모일 때 나라, 또는 민족별로 계급이나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도 고려해서 그들의 영적, 육적의 필요를 보고 접근해야 한다.

5. 아프리카 지역은 한 나라안에도 60-120족종과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러 도시로 모여드는데, 실질적으로 한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본 지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6. 이주민이나 난민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현지인들이 오히려 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신화 조>

1. 이**: 10여년 이주민 사역의 경험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복음의 접촉점을 갖는 것은 쉽지 않고 변화 역시 쉽지 않지만 조금씩 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기다림을 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 조사에 의하면 30회 이상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말한 첫번째 사람일 수 있다) 또한 더불어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2. 홍**: 국내에서 훈련센터 사역하는데 이주민사역과 난민사역은 국가정책과 경제와 관련이 깊다. 그들의 장기적인 삶을 생각하며 복음과 함께 존엄한 삶을 살기 위해 비자, 임금, 의료, 법률, 거주, 직업 등 총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3. 복**: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미디어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4. 추**: 이주민사역과 난민사역은 완전히 달라 개념, 대상, 방향성, 사역내용 등을 좀더 세분화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 선교사와 해외선교사와의 협력 및 채널이 필요하다
5. 김**: 아프리카에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국가간 혹은 종족간의 내전 등으로 난민과 이주민 집단이 발생하는데 교회에서 이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무슬림 지역은 더 어렵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라도 일대일 접촉과정과 대면 제자훈련은 필요하다. 또한 베이직으로 돌아가 소그룹에서 복음과 삶을 나눌 수 있다.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6. 함**: 유학생 사역을 국내와 현지와 연결하여 사역하였다. 교회와 단체, 개인의 협력이 필요하다
7. 박**: 이주민&난민사역에 국가정책과 연결되었다는 홍선생님의 의견을 통해 기독교 아웃

소싱회사를 만들어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들에게 총체적으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었다. 또한 교회 청년들과 유학생들을 매칭하여 친구로서 관심과 우정을 쌓아 유학생들과 교회청년들에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경험을 나누어 주었는데 매칭팀을 만들어 유학생들과 교회공동체가 사역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관계를 쌓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만남을 꺼리고 마음이 닫히는데 이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8. 김**: 이제는 선교지가 국가나 지역을 넘어서 흩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디아스포라 사역이 중요해졌다. 특히 이주민과 난민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총체적인 케어가 필요하고 더불어 분명한 선교적 전략이 필요하다. 단지 목양이 아니라 그들이 제자가 되고 현지에 돌아가 다시 제자를 재생산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디아스포라 사역은 해외선교와 협력했을 때 파급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김연경 조>

- 국내 이주민 선교와 해외 선교와의 협력이 주로 나누어졌다. 이주민의 본국 귀국후, 현지 교회에 정착과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이주민과 해외 선교사 혹은 단체 간에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주민이 국내에 있는 동안에도 온라인 소그룹, 성경공부등을 통한 현지교회 리더쉽 혹은 현지 선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현지 국내 체류 기간부터 본국에서의 신앙생활을 준비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누었다.

국내 이주민사역의 콘텐츠를 현지 사역자들과 공유하는 협력의 방법들도 제안 되었다. 현지어로 번역된 QT, 성경공부 자료나 예배, 집회, 찬양 등의 영상 콘텐츠를 공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료가 부족한 현지의 필요를 채우고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난민 선교의 경우에는 난민이 떠나온 지역에서 사역하는 현지 선교사 혹은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하는 사역도 제안 되었다. 이를 통해 난민에게 구제하는 차원을 넘어 보다 총체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들이 시도 되기를 희망하였다.

<김일환 조>

- 코트디부아르 임: 2번 아프리카 상황은 코로나에 좀 미온적인 태도인 것 같다. 이곳은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모임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지내고 있는 곳에도 이주민들이 있는데 이 사역이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국가에서 건너온 이주민들 중에는 북부아프리카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언어적인 문제가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면서 그런 방법(영상)을 통한 이주민의 사역 적인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중국 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을 국내와 해외 사역자가 같이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역은? 본국으로 돌아 갔을 때 해외에 있는 선교사역자들과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사업적인 방향으로 잘 다시 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현장과 한국의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으로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거주하던 현지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한국 교회가 현장의 선교사들에게 그들에 대한 정보가 같이 공유해 주면 현장 선교사가 그들이 현지에서 믿음 생활과 복음 전도자로 잘 훈련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김종호 장로: 복음이 우선인가? 떡이 우선인가? 하는 부분이 총체적 선교에 대한 우리의 고민인 것 같은데 굳이 떡이 없더라도 복음은 꼭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완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특히 성령에 더 민감해서 총체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
- 니카라과 정: 난민 사역에 대한 경험은 사실 없는데, 한국에서 M센터와 같이 사역을 어떻게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도움을 현장 선교사들이 도우면 좋겠다. 각국의 언어로 어떠한 사역적 도움 특히(현지 언어 번역 관련) 필요하다면 그런 것부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와 변화의 시간임을 인지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다. 총체적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프로젝트 위주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가 쌓여 있는 선교사들은 그동안의 관계로 유대가 잘 되어 있기에 그것을 통해서 관계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 할 수 있을 것 같다.
- 이스라엘 이: 주변에 무슬림 형제의 자녀 이름에 크리스천인 것을 보고 질문 했을 때 자신이 아는 외국인이 참 자신에게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가 크리스천이고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크리스천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 같다. 이주민 선교를 위해서는 마음이 겸손해 저있는 이주민들의 불안한 정서와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향수병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대면 비대면으로 관계를 통한 만남으로 그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여러가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그간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오히려 더 만남의 시간

이 더 많아지고 교재를 통해서 관계를 통한 복음 전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인터넷에서의 만남을 할 때 한국적인 문화를 통해서 그들과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총체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통해서 활짝 열려 있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 네팔 김: 코로나 19이후로 한국으로 철수하는 선교사들이 생기고 있고, 한국에는 350만이 나 되는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데 두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이주민 사역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국의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이 선교현장 사역중심에서 변화를 줌으로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을 감당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를 위한 조율과 방향성을 갖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지원을 준비해 준다면 변화하는 선교지의 사역 현장을 벗어나서 자신의 문화권에 있는 이주민 사역을 언어와 문화적인 영역이 적응 되어 있는 전문적인 선교사의 사역이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을 위한 변화를 준비 할 수 있을 것 같다.

두번째: 철수한 선교사들도 비자와 코로나 등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현장 사역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꼭 현장 사역만 고집하고 말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사역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자신이 사역했던 국가의 문화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사역을 감당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사역의 시너지 효과가 이뤄 질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김한수 조>

▶ 대만 농촌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분들이 대만 농촌분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베트남 여자 분들이 많이 있다. 대만 사람들의 특징이 동남아시아 분들이 배타적이지 않다. 우리나라는 배타적인 태도로 인해 선교에 장애가 되는데 대만은 그렇지 않다. 배우자들의 생활이 어려운 문제들이 선교사가 돕고 있고 그들의 2세대를 돕고 있어 그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었다. 이주민들의 2세대를 잘 돌보는 것이 선교에 중요한 점임을 강조하고 싶다. 보완할 부분은 사회를 대신해서 잘 품어주어야 하는 것. 타이페이 중앙역에 젊은 이주민들이 나라별로 주일에 모여 모임을 갖는데 정부에서의 제재가 없다.

▶ 온누리교회선교역사연구회 방글라데시 교회에서 역 파송 된 경우임.

코로나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사역이 있다. 전화 심방을 시작하였다. 종교의 구분없이 전화

로 심방하고 전도하고 있으며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 환자 이주민들을 돌보는 사역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직접적인 전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으로 치료 차 오신 환자분들을 위한 전도도 필요하다.

▶ 팀사역으로 함께 하는 중국선교사들과 함께 일본에 있는 중국이주민들과 온라인 모임을 하고 있다. 온라인의 일본의 영어 예배부의 필리핀 분들 중 한 가정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리더십을 키우고 있는데 이들을 돕고 있다.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을 위해서도 제자양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선교 파송 되기 전에 김포 엠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 계신 캄보디아 형제들에게 집주소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캄보디아 가정을 방문하던 중 하나님을 만나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여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엠센터의 이주민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데 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돌아오는 형제들을 위한 모임을 준비 중이다.

▶ 우리가 선교를 받았고 연약한 나라에 선교를 할 때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는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 불가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다. 네 가지 민족들이 있는데 정부의 규제가 많아서 사역하기가 쉽지 않다. 물질적인 제공만 한다면 끝이 없는 사역이다. 영혼과 리더십을 위한 사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신앙공동체가 필요하다. 이것에 역량을 집중할 선교사가 필요하다.

▶ 이주민 선교의 중점이 이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보다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신앙인으로 리더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다. 본국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많은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본국에서의 교회가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교사에게도 도움을 받기 원한다.

<박부경 조>

1. 코로나가 끝난다면 이주민 선교, 국내 난민 선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역할 것인가?
한국에 태국 노동자 등이 9만명이 있다고 한다. 단체로 한국에 들어가서 일을 하러 가고 있다. 태국인 교회가 안산에 있고 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자주 방문하신다고 들었다. 태국 목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태국인교회와 연합해서 예배를 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오늘 발표를 보면서 남부지방에도 M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 현재 M센터처럼 교회랑 연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이나 직장인 기독교인들을 파송해서 태국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태국선교사님들이 남부지방에 가서 이주민 난민을 돕고 태국인 교회를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소한 것 같다. 한국사역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중국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에 갔을 때도 한국사역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아직 러시아 사역을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니라 한국사역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러시아에서도 고려인들이 한국에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해외 필드사역자이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일 즉 한국에서 하는 사역을 해보지 못한 것 같다.

남미 콜롬비아에 보코타에 라틴두란노를 섬기고 있는데 큐티, 아버지 학교, 말씀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 사역을 중점으로 하지 않고 있다. 베네주엘라 국경과 함께 있는데 5년전부터 베네주엘라에서 난민이 콜롬비아로 넘어오고 있고 현재 200만명이 넘는다. 콜롬비아에 들어오는 난민사역은 국경에 큐티하는 교회가 있고 또한 네트워크하는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 사역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현재는 베네주엘라 난민들이 있는데 그곳은 인터넷도 안되고 빈민촌이다. 복음과 식량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지역은 말씀사역은 어렵다. 코로나로 인해 난민사역은 구제사역을 돕고 있다.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있다. 지금은 학원사역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3유닛이 오셔서 하니족과 라오족을 섬기고 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학원을 준비하고 있다.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두고 사역할것인가? 이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적으로 물리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다.

라오스에 중국사람, 베트남 사람, 태국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찾아 섬겨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하니 소수민족을 섬기려고 하는데 의료적으로 섬길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2.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선교와 해외선교 어떤 영역에서 연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국내사역이 바빠서 해외까지 신경써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국내를 드나들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라면 탁월한 능력자일 것이다 가능할지 모르겠다.

해외와 국내를 연결하여 함께 사역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국에 나가있는 러시아 고려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들의 상황을 알고 싶고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하비스트를 하는데 그 행사를 추석 때 가는데 그냥 가는 것 같은 인상도 받기도 한다. 선교지와 구체적으로 연결, 네트워크가 안되서 답답함이 있다. 중간역할을 해준다면 한국에 있는 러시아인들을 훈련시켜주고 다시 러시아로 보내준다면 그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

태국교회와 한국교회간의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MOU를 맺어서 태국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태

국이주민들과 교류하면 좋을 것 같다.

난민들과 언어가 제일 문제인 거 같다. 그래서 예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언어로 예배하고 나누고 함께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선교지에 예배나 양육하는 내용 등을 녹화를 한 후에 한국에 있는 M센터에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이주민 난민들에게 SMS를 통해 보내주거나 선교지의 예배가 있을 때 한국에서 함께 줌을 통해 예배로 함께 참여하는 것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해도 좋을 것 같다

3. 총체적 선교를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태국에서 쉽게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나 태국사람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한다. 태국에는 CGNTV가 있어서 페이스북으로 소개도 하고 전도 영상 등을 페이스북에 올려 주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 연락을 한다. 페이스북을 통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이지만 젊은이들이 선교헌신을 거의 안한다는 것이 큰 문제인 거 같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것은 젊은이들의 헌신도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비즈니스 선교사들이 나오고 있고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나오는데 선교사 숫자는 채워지는 것 같은데 젊은이들이 부족하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에 대한 개념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있다.

내주변에 30년씩 선교하신분들은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됐고 인터넷을 잘 못한다.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실제로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잘한다. 기도제목은 젊은이들이 헌신해서 선교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틴두란노는 대면사역을 했다. 세미나 집회 말씀을 전했는데 코로나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비대면 사역을 준비하게 했다. 라틴두란노도 모든 사역을 비대면으로 큐티, 말씀사역, 아버지사역까지 온라인사역을 시작했다. 차세대 청소년들을 어떻게 접근을 할까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다. 난민이나 이주민들에게 일년에 몇 번은 의료사역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의료사역이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의료사역과 구제사역을 함께 하여 치료와 복음을 함께 전해야 할 것 같다. 베네주엘라에서 넘어온 난민들을 더 도와 줄수 있을 것 같다.

라오스는 공산국가이고 통제도 많아서 쉽지 않지만 라오스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활동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코로나의 영향을 덜받고 있다.

여기 안에서 사역을 할 사람이 부족해졌다. 코로나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먼저 선교의 헌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본조건들을 현지에서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왜냐하면 라오스는 초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라오스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 이기에 현지에서 사역적인 부분들이 잘 셋팅을 해놓으면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학원 셋팅하는 것도 그런 것 중 하나다. 그럴 때 들어오시는 선교사님의 워킹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준비가 총체적 선교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결론적으로 나누자면

3가지 질문이 국내 이주민 사역중심인거 같은데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난민사역에 대한 것도 나누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한국과 해외선교지와 네트워크가 잘되면 좋겠다. 많은 정보와 훈련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박성주 조>

세째날 토론은 제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 생겨서 제가 조장으로 리드하지 않고, 이창수 선교사님께서 대신 진행을 해주시고 저는 내용을 정리만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

- 오늘 주제는 실감이 나는 주제였다.

- 화성 M 센터는 6 개국이 모이는 다양성이 있어서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첫번째는 언어의 장벽이 있었고, 두번째는 주변 교회나 단체들과 이주민을 경쟁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를 지양하고 연합하는 방안이 필요하겠다.

- 김포와 화성 M 센터를 섬기고 있는데, 김포 M 센터는 캄보디아를 섬기고 있는데, 현지인 중에는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분들을 볼 때 구분을 해서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있다. 이 경우, 타 센터나 교회와 연합해서 사역을 공유한다면 선한 영향력을 줄 것 같다.

[전...]

- 터키의 난민사역 중

- 온라인예배나 유튜브 예배는 난민교회에 가서 보니(이스탄불의 시리아 난민)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에 대해 소그룹에 어려움이 생겨서 더 큰 어려움이 생겼다.

- 해법으로 온누리 스타일로 순원 중에 일대일 등을 통해 순장을 세우고, 소그룹을 양육체로 구성할 것을 컨설팅했다.

- 기존의 사역을 그대로 온라인화하면 어려움이 있고, 정체성의 구조, 리더십의 구조 등을 바꿔 적용하면 해결책이 있었다.

-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역자들이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 저절로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 3 일동안의 간담회를 통해서 소방관을 목상하게 되었는데, 소방관은 불이 났다고 해서 피하지 않고 불 속으로 들어간다. 소방관이 365 일 긴장 속에서 사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들과 같이 영혼이 죽어가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선교사이다.

- 문이 닫히면 또 문이 열리도록 만드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임을 깨닫는다. 감비아 사역 중에 올해부터 8 가정으로 예배가 시작되는 중 코로나의 어려움이 닦쳤는데, 식량 지원을 각 가정으로 심방하며 나눠주는 중에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 추장의 요청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수업을 하게 되어,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경험이 있었다.

[이...]

- 감비아의 성도 중에는 1 명만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정보화 수준이 떨어져 있어서, 현재 온누리교회가 원하는 온라인 사역과 현장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M 센터에 이미 준비되어있는 영어자료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다.

<박승훈 조>

더멋진세상의 박승훈 선교사입니다.

계속되는 온라인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유익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본부와 소통이 활기차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본부, 터키 -> 온누리 선교역사 정리 중)

오늘 강의에서 도전이 된 것은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이주민이 많은데 사역자가 부족하다는 발표 내용을 듣고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사역자가 부족한데 사역자를 지방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안산 캄보디아 -> 캄보디아 언어연수와 한국 M센터에서 귀환한 지체를 만나고 있음)

이주민의 환경이 빠르게 변화고 있다. 비자, 삶의 환경, 재취업 등의 어려움으로 그들이 들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로 찾아가 소그룹 별로 대면하는 사역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전(파키스탄, 비자 대기중)

무슬림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누가 빨리 그러한 친구들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또한 법적 책임과 실제 행정 지원에 대한 매뉴얼과 모델제시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뢰가 중요하며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열기 때문이다.

(정착지원 -> 신뢰관계 형성 -> 공동체 연결)

김(캄보디아)

한국을 다녀간 이주민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양육과 신뢰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연결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이주민 사역이 활발하여 영향력 아래 있지만 본국으로 돌아 갔을 때 다시 옛 종교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연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M센터와 해외 필드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고 그에 대한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 시급하다고 본다.

더 나가 귀환 한 이주민들의 신앙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지원하고 그들이 본국에서 리더의 역할로 서는 것까지를 목표로 세워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김포 온누리 M센터)

특히 선교사도 자녀에 대한 고민과 사회적 환경 적응, 교육 등의 부담이 큰데 이주민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소수의 아이들과 대면하고 사역을 하다보니 부모들과 친밀해진다.

적지 않은 이주민 가정이 미디어 활용이 어려워한다. 그러한 가정들을 찾아가 도와줄 때 신뢰가 쌓이고 친밀해 진다. 차세대 사역으로 접근했지만 부모에게 오히려 깊은 위로가 되었고 그들이 복음에 마음을 열었다.

<박창홍 조>

- 이주민 사역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 외국인들이 정이 많은 한국인에 관심이 많고 특히 국적이 많이 올라가 있어 국내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용이함.

- 중국이나 이슬람지역처럼 보안 문제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지역은 선교사로서 늘 심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마음껏 전도가 가능함. 언어를 배워야 하는 시간과 부담감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국가로부터 온 다양한 종족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음.

- 이슬람 지역에서는 궁금해도 질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궁금증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클릭 하도록 유인책을 만들고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

- 한국에서의 이주민들은 자신의 언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고향이 그리울 때 자국의 음식을 먹고 자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음.

- 한국에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이주민 형제들이 현지 교회에 잘 연계가 되고 지속적으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지와 네트워크 하는 것이 중요함.

- 다문화 사회, 난민문제가 이슈화 된 것이 오래지 않았는데, 전문화된 리서치 팀이 구성되어서 이주민과 난민들을 모니터링하고 개념과 철학을 정립하며,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전

문 팀의 필요성 제안.

- 한국 남성과 결혼한 많은 이주민 여성들이 있음, 문화 차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함.
-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와 복음 메시지들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보급,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배윤주 조>

1. 코로나가 끝난다면 이주민 선교, 국내 난민 선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역할 것인가?

- 캄보디아에서 백 만명이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나가있다. 코로나 이후 아마 더 많은 인원이 가게 될 것이다. M미션과 네트워킹이 잘 되어서 현지에서 신앙 생활 잘 했던 지체들이 한국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
- 국내외 난민 상황은 잘 모르지만 이란, 아프간 난민 사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다. 강의 중, 클릭 선교가 인상 깊었는데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면 좋겠다.
- 국내 이주민 사역에 많은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 현지에서도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로 사역적 거리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내 이주민 사역과 해외 선교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질 것 같다. 아랍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면 좋겠다.
- 직접 난민 사역을 하진 않지만 현지(터키)에서 난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예배와 피드백을 듣고 있다. 이번 코로나로 난민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 특히 생필품(마스크 등)의 절대적 부족함을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창의적인 방법들을 구하면 좋겠다. 사역의 프로젝트 화가 아니라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님께 맡길 때 재정적인 부분도 뛰어넘는 창의적 방법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 난민들과 언어 소통이 어렵다. 난민들은 현지어(터키)를 잘 모르는 이민족들이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지나야 영적인 만남(제자 양육이나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난민 사역에 재정적인 부분을 쏟아 붓기 보다 시간을 두고 영적인 훈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완급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 코로나 종식 후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사역의 방법이 생길 것이다. 단지 현장 대면 예배에 국한되어 있던 것이 온라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넓어졌다. 긍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 사역할 수 있을지 고민중이다.
- 온라인 사역의 단점으로 공동체성 약화를 꼽는데, 역으로 말하면 그들이 더욱 갈급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방법, 소규모 심방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갈급한 심령의 이주민들이 더욱 돈독한 공동체성이 생기길 바란다.

2. 코로나 상황에서 이주민선교와 해외선교 어떤 영역에서 연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

-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가게 된 현지인들은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힌다.

첫번째 담당 사역자들의 언어적 제약으로 인해 예배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 사역자들에게 언어적 준비가 가장 필요하다. M미션을 통해 1년간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선교사들을 봤다. 정말 필요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훈련되어 한국에서도 M미션 사역에 사용되길 바란다.

두번째 현지에서 만들어진 다양하고 좋은 콘텐츠를 활용하면 좋겠다. 한국에서 의미도 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재정을 들여 새롭게 제작하기 보다 이미 현지에 나와있는 훌륭한 콘텐츠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캄보디아 콘텐츠 소개 : WWW.goodnews.com

- 수많은 간증과 복음 전도에서 영접 기도까지 다양한 사역의 콘텐츠가 캄보디아어로 되어 있고, SNS를 통해 할 수 있어서 M미션쪽과 공유되어 국내에서 꼭 활용되면 좋겠다.

- 본국 귀환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이 신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현지에 재적응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다. 귀국한 현지인들은 자신들의 달라진 상황과 현지의 갭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본국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나 본국에서 취직을 못해 힘든 경우가 있다. 본국 귀환자들이 재적응을 잘 하고 현지 교회와 연결이 될 수 있는 네트워킹을 잘 하면 좋겠다.

(붉은색 내용은 본부에 전달 시 꼭 강조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

3. 총체적 선교를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 폐북의 위험성. 종교적인 콘텐츠에 대해 강하게 공격받고 도메인이 폐쇄되어 모든 자료가 다 파괴되었다. 폐북의 강제 폐쇄를 염두하여 정식으로 사역할 수 있는 플랫폼, 홈페이지 제작이 필요하다.

- 이번 기회로 다른 현장이나 M미션과도 사역의 공유가 되고, 네트워킹이 잘 되면 좋겠다. 정확한 정보전달과 중복된 사역, 사역에 있어 미비한 것들이 상화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어느 날 지하철 안에서 캄보디아어를 듣게 되었는데, 굿뉴스.아시아와 성명 등의 간단한 내용만 적힌 명함을 건네주었다. 이주민들은 노동자로 갔기때문에 어디 소속감을 느낄 공동체가 없다. M미션의 홈페이지 주소 등을 새긴 작은 명함들을 많이 나누면 좋겠다. 전화 번호도 적어서 다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접근과 표현 방법이 필요하다.

4. 기타 내용

-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질문? 한국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사역이나 어느 정도 활발하게 진행하는 단체가 있는가?

- 캄보디아어 예배는 M미션에서 진행하고 있고, 한국에 캄보디아와 관련된 100여개 모임 있다고 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역이나 교회 정착을 위한 것은 아니다. 정부 지자체에서도 돕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종교적인 것이 거의 없다. 어쨌든 언어적 한계로 활발히 사역 진행이 안된다.

- 지방에는 이주민 사역이 어렵다. 교회의 역량들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 이주민 사역은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준비해야 한다. 이주민을 지역 교회의 성도로 한국인과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큰 장벽이다.

- 온누리 M미션에서 지방의 지역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콘텐츠를 어디까지, 얼마큼, 언제까지 도울 수 있는 가이드를 알고 싶다.

<신동빈 조>

<A국 A선생님>

◆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면서 나라별로 상이한 대처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불허하였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민의 경우 입국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자국민의 입국마저 불허하여 해당 국가의 국민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있었다.

• 난민의 경우는 현재 임시로 머물고 있는 국가에 그 국가의 국민들보다 보호에 있어서 후순위다 보니 코로나의 위험에 크게 노출 되었고, 일부 난민들의 정착촌에는 코로나가 집단으로 발생 되어 어려움을 겪었다.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이주민과 난민들은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였고, 그 도움은 빵과 복음의 두 영역에서 모두 요구되었다.

<B국 B선생님>

◆ 이주민 선교와 해외선교와의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 이주민의 경우 한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는 한국에서처럼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경험이 있는 현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해당 국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네트워킹하여 계속적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 한 개인의 신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그를 통해 그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A국 C선생님>

◆ 같은 이주민의 입장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한국에 온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 이주민들보다는 갑에 입장에 서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주민들은 을의 입장이 된다. 그러다 보니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도움을 얻길 원하고, 이주민사역을 하는 사역자는 그 서비스의 제공자가 되어진다.

• 만약 사역을 하는 사역자와 이주민의 처지가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사역자에게 무엇인가를 제공만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가 형성 되리라 생각된다.

• 예를 들면 튀니지나 모로코의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프랑스에 이주민으로 많이 진출해서 살고 있다. 북아프리카의 사역의 경험이 있는 사역자가 그 무대를 프랑스로 옮겨 그 곳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사역을 한다면, 원래의 그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또 한가지의 예는 일본에 있는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몽골에서의 경험이 있는 사역자가 일본에 가서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많은 한인 사역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몽골에서 일본으로 이주하여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몽골인의 입장에서도 같은 이주민의 입장이라서 관계 형성을 하는 데에나 사역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분명 몽골 현지나 한국에서 하는 사역보다 효과적인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 위의 두 경우와 비슷하게 유럽지역에 있는 아랍 이주민을 대상으로 중동 사역에 경험이 있는 사역자가 유럽으로 사역지를 옮겨 사역을 한다면, 중동 지역에서 보다 더 자유롭게 사역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이주민의 처지에서 사역을 하기에 동질감을 느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옥진 조>

- 아프리카지역은 주로 유럽으로 가는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많고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실제로 와 닿지는 않았다.
- 시리아를 비롯한 난민들은 현재 코로나로 학교와 교육사역이 전면 중단되어서 어려움을 겪고있다.
- 이주민은 문화의 차이를 얼마나 인식하고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해외에서 이주민으로의 경험을 한 사람은 훨씬 더 한국내 이주민을 잘 돌볼 수 있다.
- 한국에 오게 될, 남게 될 선교사님들은 한국내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면 좋을 것 같다.
- 한국의 남쪽 지역에도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서울과 경기지역으로만 이주민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편중 되어 있다.
- 한국에 와있는 이주민들은 무엇보다 한국어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복음 접촉의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어영선 조>

- 이주민 난민 선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라는 마음으로 해야하고 무조건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이주/난민들은 무슬림이므로 복음의 본질을 전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영적 전투를 격어야 한다
- 이주/난민선교는 차세대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이주/난민선교는 한국이 아니라 본국에서 뿌리를 내려야 함으로 현지 교회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선교사는 현지 교회와의 친분과 신뢰를 쌓아 이주/난민들이 본국으로 왔을때를 대비해야 한다
- 한국의 각 지역의 M센터는 현지 선교사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주/난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갈때 연결을 시켜주어야 한다
- 난민은 국가가 관리 함으로 일찍 너무 일찍 정착을 시켜준다. 이 지역에서는 교회에서 잘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데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무슬림들은 반드시 종교 이야기를 한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관심있는 자들을 따로 모임을 갖고 지속적인 만남을 한다
- 이주/난민선교은 계속 물을 주고 씨를 뿌려야 하는 사역이다. 지치기도 한다. 팀사역이 필요하

지만 사람이 없다.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보내 주길 바란다

- 현지 시골지역에서 대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 갔던 일용직 근로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들도 이주/난민들이며 코로나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계층이다.

<유지환 조>

이주민 선교는 아주 중요하다. 우리 모두 해외에 있을 때는 약자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와 필요를 잘 파악하여 사역할 필요가 있다.

현지인 사역자가 한국의 이주민 노동자로 있었던 사례들이 있고 이런 추세가 늘고 있다. 한국에서 이주민 노동자로 있었다가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연결되어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에 있을 때 복음을 접착하고 본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주민, 난민들을 대상으로 전도와 양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클릭전도와 같은 툴은 현장의 선교사들에게 빨리 전달될 수 있으면 효과적이다.

현장에 하드웨어는 대부분 준비되었으나 소프트웨어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준비된 자료들을 다양한 언어로 보급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주민사역, 난민사역을 하려면 사역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단기적으로 전문화된 사람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협력의 관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방법론적으로, 온누리교회에서 현재 실기하고 있는 공동체의 선교사책임제처럼 이주민 선교 또한 성도들이 책임제로 섬기는 것은 어떨까 생각된다. 매칭이 되면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케어가 일어날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면 외국인으로서, 난민으로서, 이주자로서 약자로만 머물지 않고 물심양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복음의 결실이 일어날 줄 믿는다.

<이원상 조>

- 언어와 문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다. 국내와 해외선교는 이제는 통합과 연합으로 가야한다.

- 유대인 대상 전도였으나 그러는 중에 만나는 사람의 40%는 아프리카, 중국, 필리핀 아시안 난민 불법채류자들을 만나고 교류가 일어나게 되었다. 믿는 유대인들이 먼저 난민들에게 전도하면서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사역의 힘을 받고 다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도가 일어났다. 현지에서의 난민전도는 전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
- 라오스 안에서의 중국인은 이주민 선교가 된다,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야 효과가 있다. 그들이 라오스 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생각했다.
- 코로나 전후가 크게 중심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지속적인 미디어의 활용도는 잘 사용 되어질 것으로 본다. 전 영역에서 이주민과 해외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페이스북을 좀더 잘 활용해야겠다. 발전된 언어. 현지에서 이주민을 만나면 서로 현지 언어가 제2언어이므로 그리고 함께 동일한 이주민으로서 마음이 더 잘 통하는 것을 통해 더 잘 대화가 된 것을 보았다.
- 비즈니스 계정으로 연결하면 보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오늘 강의 도움 받았다.
- 타지키스탄은 가난해서 ngo등 큰 단체들이 난민을 돕고 있다. 코로나 전후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 교회 총체적 선교의 관점을 확대하고 넓게 보아야한다. 꼭 교회개혁만이 아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 코로나19는 현 삶에서 이주민 난민선교를 구분해서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효율적으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한 것 같다. 이주민과 난민 이 분들이야말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이들에게 적극적 복음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일본은 이주민 난민사역에대한 인식이 낮다. 이것에 대해 교회를 깨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온누리에 미디어 센터가 생길 것이다. 온누리 모든 예배와 유튜브로 만들어져서 활용될 것이다. 영어예배에서 1대1 제장양육한다. 30여명 한다. 중동 미국 등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다. 햇불트리니티에서 선교지 현지인이나 이주민 등 후계자를 세우고 싶을 때 영어가 된다면 추천을 해주면 전액 장학생으로 지원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 코로나를 극복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다녀보니 난민들이 너무도 삶이 어렵다. 조건 없는 총체적인 사랑을 나누자.

<이정미 조>

권선교사(캄보디아)

캄보디아에도 난민 베트남의 boat peoples 이 있지만 현지인들과 섞여서 살고 있어서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들의 국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자녀들 교육 문제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포 M 센터를 통해 알게 된 건 한국에 6 만명정도 캄보디아인들이 이주해 있다는 사실인데, 그들을 돌볼 캄보디아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들었다.

캄보디아에 많은 중국인들이 이주해 있다.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이곳으로 사역지를 옮겼는데 본토보다 이주민 사역이 더 어렵다. 중국인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그들을 향한 사역이 너무 어려워서 현지인 선교로 방향을 전환했다. 중국인 사역을 하기 위해 교회들을 돌아봤는데 사역이 매우 어렵다고 전해주었고, 중국에서 대학생 사역을 했었는데, 캄보디아에 이주한 중국인들은 노동자들 위주이고 방언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 서로 언어적 장애가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집단 생활을 하니까 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 프놈펜은 카지노 사업이 많아져서 중국 이주민들이 카지노와 연루된 총기 사건이나 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서 매우 위험하다. 이곳에 정착한 지 3년 지났는데, 여성 싱글로서 안전 문제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곳 캄보디아로 베트남 이주민이 일부 유입되고 있고, 캄보디아인들이 태국, 말레이지아로 유출되는 경우 많다. 유입은 중국인들이 가장 인구가 많지만 안전 문제가 심하다. 홍콩 사업가들이 회사 안에 교회를 세우고 노동자들이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고, 자영업자들도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

B 선교사 (이란 테헤란)

미국에서 이주민 사역과 난민 사역의 현장을 많이 접한다. 우리가 훈련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앙 생활을 잘 하는 경우가 적다.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현지의 교회와 잘 연결되어서 계속 신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테헤란은 연휴가 시작되는데 3 천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인데도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코로나를 가볍게 생각한다. 인도에서 이란으로 옮겨와 정착하기 위해 사업 비자를 준비하는 중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좀 지연되는 중. 이란 사역은 다른 지역 아랍 사역자들과 세계적인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비대면 인터넷 플랫폼 사역은 이란 국내에서 진행하기는 안전 문제가 있어서 제 3 국에서 해 주시길 바라고, 아랍 사역자들과 사역을 공유하기 원한다.

정선교사 (세네갈)

세네갈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여서 주변 국가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이 많아서 현지에서 이주민 선교가 가능하다. 복음주의 교회가 0.1%로 아주 열세이지만 잘 훈련해서 역파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네갈 현지인 사역도 가능하고 세네갈 이주민 사역도 개척할

계획이다. 총체적 선교가 아주 중요한데, 인간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농업전공자로서 할 일이 많다. 아프리카 인구의 80%가 농촌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농업 기술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지 준비 중이다.

<이준욱 조>

1. 몽골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병가를 내서 한국에 체류 중임. 한국에는 2만명 정도의 몽골인이 있다. 해외에서 사역했던 선교사가 언어와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이주민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한국에 있는 동안 와이미션을 섬기기도 하고, 한 명의 몽골인이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다. M센터에 몽골예배가 있는데 주일에 한번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양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한국에 있는 동안 '다문화상담'을 인터넷으로 공부했는데 '다문화상담사' 자격증도 받게 됨.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지 모르니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2.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김포M센터에서 일하게 됨.

미얀마 난민을 섬기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다 보니 서로간에(사역자와 난민) 교제의 갈망이 있어서 찾아가서 만남을 갖고 있음. 가정도 방문하지만 대부분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공장 방문해서 형제들을 만나고 다른 동료들도 만나게 되어 전도함. 공장 안에 리더를 세워 리더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게 함. 난민들은 여러 군데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본다.

'한국어교육'이 그들에게 다가가기 아주 좋은 매개체이다.

3.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한국에 방문했다가 동두천에 있는 교회에서 4주간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한국어교육을 해 준 적이 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었음. 난민 지원이 잘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동두천 같이 잘 안 되는 사각지대인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 그래서 난민 사역은 교회가 섬겨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됨.

4.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스탄불 주변에 난민이 많음. 영국 팀이 세운 교회에서 협력하며 난민을 섬김. 난민을 잘 세우고 양육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국민

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한국어'라는 언어를 매개체로 해서 현지인을 만나 복음까지 이어지도록 함.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나와 있는 상태라 현지인과 계속 온라인으로 교제하며 기도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터어키로 돌아가서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기도하며 찾고 있는 중임. 페이스북으로 중계하는 것 등 이번 강의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많음. 그리고 만약 비자 등의 이유로 터어키로 가는 것이 막히게 되면 국내에서 이주민이나 난민 중 터어키어를 쓰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열린 마음으로 기도 중임.

5. 독일과 한국에서 사역(경찬) 중. 독일에서 이주민의 심정으로 2년 정도 살아보니 그 땅에서 살아남는 것이 참 힘들다고 느껴짐. 그들의 냉정한 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임. 독일에서 오래 산 한국인이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라 하더라도 '한국인 모임'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비록 언어는 통해도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함.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난민 또한 같을 것이라고 본다. 독일 교회에서 난민을 섬기는 모토도 '난민들이 독일 문화 속에 잘 적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6.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민 숫자는 250만 명이고 2030년에는 500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203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10퍼센트가 이주민인 셈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인 다문화 차세대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임현주 조>

- 현장 선교사로서 안식년 기간에 언어가 통하는 국내 이주민과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 네트워크와 협력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창의적 접근지역의 선교사에게는 조심스럽다.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국내 사역을 협력하려고 할 때, 보안이 조심스럽다. 사실 창의적 접근 지역 사역자에게 가장 필요한 네트워크인데도 조심스럽다.
-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 사역 팀에 와서 현장의 필요들을 나누거나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 코로나 때문에 통제 되고 지역 이동도 안되고 제한적으로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다. 유튜브에 접속하는 것도 보안상 어렵다. 현지인들의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 코로나 상황의

사역에 대해 사실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다.

- 북아프리카 사역자로서 처음 사역지에 나왔을 때보다 최근 한국에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튜브를 보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정보를 알고 싶다. 한국과 현장의 같은 언어권과 권역 별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협력이 있으면 좋겠다.
-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을 활용한 사역을 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클릭전도,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해 더 알고 싶다.
- 번역이나 도움 필요하면 나도 제공할 수 있다.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협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 북한 사역자이다. 현장에 가지 못하고 지금은 북한 동포를 대상으로 강의를 리코딩해서 나누고 있다. 인터넷으로 성경필사와 목상을 하고 있다. 지금 동포들의 현상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영성 훈련이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도울 만한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 중국 선교사로서 이주민과 난민 사역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오늘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회의 자선사역에 대해 의논을 하고 돌아왔다. 난민사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이주민 사역을 하다가 현재는 현장 사역을 하고 있다. 현장에 있다가 보니 한국을 다녀온 친구들과 친하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들이 제일 위험한 친구다. 국내 이주민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서 신뢰할만한 형제들을 연결된다면 괜찮은데, 한국에서 혜택만 누리고 좋은 것만 받다가 와서 귀국 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와 연결되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신분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온 형제들에게 집중적이면 질적인 양육이 이루어져서 귀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원이 많지 않아도 된다. 많이 모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있을 때의 마음과 현지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또 다르다. 그런 모든 부분을 고려하며 사역을 해야한다.
- 이라크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있다. 난민촌에서 난민 아이들 가르치고 가정 방문하고 복음 전하며 살고 있다. 도시에 떨어진 곳에서 지내다 보니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많이 안 받고 사역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강의를 들으며 주의 깊게 들었고, 몰랐던 틀이 있다는 것도 배웠다. 페이스북 비즈니스 전도를 어떻게 하는 지 알고 싶다. 클릭 전도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 국내에 쿠르드인이 있는지 알고 싶다. 국내에 있는 동안에 만나고 싶다.
- 당장 쿠르드인에 대한 정보는 드릴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나 이천선교본부나 나중에 온누리m미션으로 문의를 해주면 좋겠다. 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 이주민 사역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현지 언어 교육이 언택트 시대에 현지에 있는 좋은 학원을 통해서 교육이 가능하다. 개인레슨도 가능하다.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언어교육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 북한 이주민을 위한 제자양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보와 자료가 필요하다.
- 총정리: 이번 나눔을 통해 이주민과 난민 선교가 국내와 현지 사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국내 사역자와 현장 사역자들의 네트워크와 협력이 이주민과 난민 사역에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필요를 국내사역자들이 도울 수 있고, 국내 사역에서도 현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 예로 국내에서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더 많은 현장 사역자들에게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국내 콘텐츠 제작을 위해 현장 사역자들의 필요에 맞도록 제작하는 것도 네트워크와 협력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저희는 조장 포함 7유닛이 나눔을 했습니다. 처음 배정받은 조에서는 제 스피커가 켜지지 않아서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새롭게 배정받은 조에 마침 조장이 없어서 그 조에서 나눈 내용을 정리하여 첨부 드립니다.
- 3일 동안 같은 고민을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홍렬 조>

- * 오늘 이주민사역에 관한 발제를 지켜보며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국내에서 이렇게 이주민선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 오게 한 이주민들 사이에서 행하신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M미션에서 준비하고 있는 클릭전도는 매우 유용한 전도방법입니다. 또한 각국의 언어로 제작된 유튜브전도영상은 전도를 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대면 전도가 어려워진 이 시기에 각종 영상, SNS를 통한 전도의 시도를 계속 해야할 것 같습니다.
- * 해외에서 교육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한국에 들어간 후에 지속해서 한국에서 섬겼던 국가의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엠센터를 통하여 이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상황에서 그들을 신앙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엠센터와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한 영혼을 지속적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 오늘 나눔 가운데 무슬림사역, 난민사역에만 집중이 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그 외에 나라들의 사역도 기회가 된다면 듣고 싶습니다

* 일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훈련 받은 일본사람들이 귀국하여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본사람을 한국에서 훈련시키고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주민사역의 한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 스리랑카에서 국제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리랑카학생을 한국으로 유학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한국에 간 다음에 그들의 신앙적인 돌봄을 생각하게 되는데 M센터는 이러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M미션과 해외선교가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 사역하기 원합니다.

* 과거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전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있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주민선교는 전도하기 어려운 국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놓칠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주민선교 역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조별나눔을 마치며..

이주민선교의 전도와 난민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주민선교는 한국에 와있는 각국의 영혼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과정 가운데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엠미션의 사역이 더욱 활발히 전개가 되어 이주민을 섬기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한국의 모든 교회가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치윤 조>

*난민/이주민의 용어를 먼저 정리하면 좋겠다.

Refugee / Diaspora / Migrant 용어가 있는데, 우리는 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좋겠다.

*또한 난민/이주민 사역을 바라보는 3가지 단계로서

1. Mission to Diaspora

2. Diaspora through Diaspora

3. Mission Beyond Diaspora

*1. Mission to Diaspora – 현재까지 온누리교회와 M미션이 잘 감당해 오셨고, 김주의 난민/이주민 사역의 적절한 타이밍에 현재 필요한 사역을 진행하면 좋겠다.

>> 현재 난민/이주민 사역에 여러 교회와 정부들이 많이 개입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온누리교회가 개입해서 사역하면 좋겠다.

*2. Diaspora through Diaspora

난민/이주민이 난민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난민/이주민들 가운데, 국내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국내 난민/이주민들을 섬길 사람들을 잘 분류하고, 또한 돌아갈 생각을 하는 분들을 또한 잘 분류해서 적절한 훈련을 통해 맞도록 세우면 좋겠다.

특히 돌아가는 분이라면, 한국의 예배를 맛보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역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나라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았다. 따라서 본국으로 역파송되는 사역자들의 경우는 중간 단계에서 적절히 본국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자.

*3. Mission Beyond Diaspora

난민들이 현장에서 오히려 사역자로 세워지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따라서 단순히 도움을 받는 난민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비전을 가지고, 세워가면 좋겠다.

또한 난민/이주민 사역을 잘 해가고 있는 여러 국제단체들과 잘 네트워크를 해서 온누리교회의 난민 이주민 사역이 조금 더 발전해 갈 수 있겠다.

<조금수 조>

1. 이주민 선교와 국내난민선교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 이주민과 난민들이 이주하는 배경에는 소외되고 경직된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한국에 와서 삶을 정착해 나갈 때 무엇보다도 마음의 정착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과정을 조건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실제적인 부분의 나눔에 성실하고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다. (조건적인 관계를 지양)

- 일본에 중국인들이 많아 사역자로 헌신했는데 한국에서 중국인들과의 관계형성보다 타국에서 만나는 중국인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이 통해서인지 외면적인 도움보다는 내면적인 나눔에 더 마음이 많이 열려지는 것 같다. 이런 정서적인 교감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긍정적이다.(타국에서 외지인으로서 만나는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과의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관계형성과 복음전달에 긍정적이다)

- 서울의 구로동과 같이 조선족들의 밀집지역에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재한조선족교회들이 많다. 한국목사가 한국사회를 연결해주는 교량의 역할을 해주고 성도들과 부교역자들은 중국인중심으로 구성되어 결집성과 이양에 좋은 결실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형태는 이주해오는 동족들에 대한 좋은 거점으로 역할을 하기에 역파송과 지속적인 교류와 성장이 좋은 이주민선교의 모델로 세워지는 것 같다.(한국인이 촉매의 역할만 해주고 자립 자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양하며 역파송된 현지와 연결되어 성장을 돕는다)

2. 이주민선교와 해외선교는 어떤 영역에서 연합해야 시너지가 날것인가?

- 니과라과 같은 지역은 이주민과 난민사역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역하는 학교사역을 통해 타국 난민들의 어려움을 돕고 기도하며 동참한 적이 있다.(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협력하도록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준비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일본에서 중국인 사역을 할 때 한국교회가 중국인들에게 접근성이 많아서 마음을 열고 접근하기가 쉬운 것 같다. 그래서 일본오사카교회에서 중국어예배부를 형성하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전개하는데 재외한인교회가 거점이 되어서 중국인들을 접하고 함께 동역함으로 협력사역을 해 나가니 좋은 유익이 있고 중국에서의 가정교회개척보다는 더 자유하고 교회의 자원들을 공유하니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중국에서 비자발적으로 귀국한 중국선교사들이 일본에 한국보다 많은 중국인들에게 헌신되어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다시 중국으로 언젠가 돌아갈 날이 있기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중국사역의 목표를 함께 붙

잡고 중국인들이 흩어진 국가들을 리서치해서 디아스포라 중국사역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현지교회와 선교사들이 연합한다)

- 오늘 발표에서 소개된 클릭전도, 모자익 메시지와 같은 교육툴들이 나라별로 번역되어서 사역을 돌파하는데 사용되도록 보급되면 좋겠다. 사실 팬데믹으로 비자발적으로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은데 이들이 선교지로 들어갈 것만을 기다려주기 보다는 한국에서 엠센터나 각 기관에서 교육툴이나 번역 교재 제작 섬김 등 필요한 자원으로 다양하게 쓰임 받도록 안내하고 활용하고 유도하여서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떤 환경이든 좋은 선교자원들 특히 인력자원들이 적재적소에 쓰임 받도록 유도하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안내한다)

3. 총체적 선교를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

-총체적 선교가 필요하나 자칫 복음의 비중과 우선을 놓칠 때가 있다.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에 신중하기를 바라고 균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 학교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본질에 집중하기 어려운 공격들과 요구들이 있어서 위기도 많았지만 복음에 대한 중심성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다.

-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우선적 필요는 생계일것이다. 이들과의 관계가 이원화된 사고방식이 아니길 바라고 인간의 본질 부분에 대한 간절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4. 본부에게 전하는 제안 내지 건의사항

- 온누리 역사 35년을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고 그 역사 속에 희로애락을 함께 한 우리이기에 35년을 대면하고 함께 모인 우리들 모두가 감사요 격려이며 위로였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복음의 역동성 안에 하나되어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또 귀한 강의도 또 함께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노력과 고민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었다.

- 이번 주제가 협력,연합/교회개혁,제자양육은 사역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여서 나눔에 이슈들이 많았으나 이주민과 난민 주제는 코로나로 사역의 돌파를 이루어야 하는 현실적 이슈에 대해서 공감을 이끌기에 어려웠다.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모이기도 쉽지 않은

환경을 고려한다면 강의는 온누리선교의 전체성을 이해하는 구성이 되면 좋겠고 토론 모임은 권역, 종교권이나 같은 사역의 내용에 따른 범위(학교사역, 교수사역, 비지니스사역, 훈련센터 사역 등등)로 묶어주었다면 더 실제적인 내용을 도출할 토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선교지에서 오래 사역하다 보면 자기화 되고 매몰될 때가 많다. 사역을 하면서 좋은 모델 사례를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 현실적 이슈 등을 대면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실패한 경험들도 정직하게 소개하고 나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3일간 모임을 통해 온누리35년의 선교영성과 하나됨을 다시 한 번 가슴에 품고 도전하도록 격려해주신 온누리교회와 2000본부, 김홍주본부장님, 섬겨주신 이경희목사님, 박시형목사님, 조경근목사님과 간사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홍명희 조>

1. 난민선교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지식이나 경험이 미약하여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가 없었다. 오늘의 주제발표와 논찬을 통해 오히려 배우게 되었는데, SNS나 페이스북을 뛰어넘어 공동체적인 틀의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2. 난민과 이주민은 법적 신분이 다르다. 용어구분과 인식의 구분이 되어야 사역 대상의 사역내용이나 방법도 더 전문화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주민사역과 해외선교사가 함께 협력할 수 있고 선교현지와 국내가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채널이 있다면 좀더 쉽게 벽을 넘고 불필요한 시간을 아껴 빠르게 협력의 단계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4.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북쪽의 가난한 무슬림종족들이 좀 더 살기 좋은 남쪽으로 이주하여 집단 거주하는 케이스가 있다. 종족간 언어가 상이하여 선교사들은 소통조차 불가능한데 현지의 교회들은 그들이 무슬림이고 자신들의 교회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나그네들을 외면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현지교회를 향하여 펼치고 있는 제자양육을 통해 그들을 선교적교회로 동원하여 현지교회가 자신들의 곁으로 이주해온 나그네들을 보살피고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본다.
5. 학원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현지의 대학생들을 한국대학으로 연결하여 유학을 보내는 경우 국내 교회의 청년들과 매칭하여 이들 선교현지대학생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선한 사마리아 친구가

되어준다면 유학을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온 이들이 복음 전도사가 되어 더 많은 영향력으로 자신의 종족과 조국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교회 청년들이 이런 사역의 경험을 통해 차세대 선교재인으로 준비 될 수 있고 교회는 이들 청년들을 통해 선교의 마인드가 공감 되어질 것이다.

6. 국제이주가 보편화된 이 시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역의 총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 이주민 & 난민선교의 전략은 국가의 외국인정책과 수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많은 이주민과 난민이 몰려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은, 이들이 국내에서 소수요 약자요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불공평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그들의 삶이 문제들을 함께 대면해야 한다는 것. 총체적 선교가 필요하다. 법적, 의료적, 교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 가정의 문제와 생계의 문제도 있다. 만일 선교단체나 기독교단체가 아웃소싱회사(일종의 사회적기업 같은)를 설립하여 동종업계보다 낮은 비율의 수수료를 받으며 좀더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직업을 연결시켜 주거나, 이들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기에 충분한 전문기술(제빵, 자동차수리, 목공 등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빵과 복음으로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